

## [자료 해제]

### 가토 간카쿠(加藤灌覺)의

「朝鮮演劇の大要と其の脚本の梗概」와

### 김재철의 『조선연극사』

윤진현\*

#### 1. 김재철 『조선연극사』에 대한 서지학적 문제제기

최근 김재철의 『조선연극사』에 대한 짧은 글을<sup>1)</sup> 쓰면서 전경수 교수의 「민속학과 민속주의 사이의 송석하」(『민속학연구』 51, 2022.11)에서 놀라운 언급을 발견하였다. 다소 길지만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관련 부분 전체를 인용한다.

김재철의 『조선연극사』에서는 “구극과 신극”이라는 제하의 논의를 하고 있는데(金在喆 1933.5.: 164), 선행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였던 카토 칸가쿠의 글(加藤灌覺 1918.9.1)을 인용한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구극과 신극”이란 구분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로서 구전 되어 오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의 구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록을 남긴 최초의 글은 카토 칸가쿠의 논문이라고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윤진현, 「김재철의 조선연극사, 민속에서 연극으로」, 『연세근대한국학통신』 2024-12호,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2024.08.

“조선의 연극은 신과와 구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과는 일본신과극의 아류, 구과는 조선고유의 가무극을 기초로 하여 내지적 각색에 지나지 않으며, 廣大 광디, 솜當舖, 踞當舖 거샤 등으로 불리는 우창(優倡) 및 재인(才人) 등으로 호칭하였다”(加藤灌覺 1918.9.1: 79)는 보고는 ‘조선연극사라는 장르에서 무시될 수가 없다.

“신과극 시작은 7~8년 전이며, 구과 창시는 1905~6년 전후다. 신과는 단상사(團成社), 구과는 광무대(光武臺)에서 연극을 하였다”(加藤灌覺 1918.9.1: 79). “구과의 예로는 춘향전, 심청전, 장화홍련전이다”(加藤灌覺 1918.9.1: 81-82) 라는 진술들은 김재철의 <조선연극사>에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인용된 흔적을 보이지 않는다. 카토의 기록과 대조가 필요한 김재철의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구극무대의 구조는 신극무대의 구조와 똑같았었다. 원각사(圓覺社)에서도 신극이 다 동일한 무대에서 연출되었고, 관객의 위치도 동일하였으며, 광무대, 미나토좌(座)도 신극의 무대와 차별이 없었다”(김재철 1933.5.: 171-172). “1909년에 최초로 이인직(李人植)씨가 신극 ‘설중매(雪中梅)’ ‘은세계(銀世界)’ 등을 상연하였으니 그것이 조선 신극의 제일성이었다”(김재철 1933.5.: 173). “1913년에 일본에서 귀국한 윤백남(尹白南)씨는 조중환(趙重桓)씨와 함께 원각사를 인수하여 문수성(文秀星)의 일좌를 조직하고, ‘불여귀(不如歸)’ ‘장한몽(長恨夢)’ ‘나의 죄(罪)’ 등을 공연하였다”(김재철 1933.5.: 174). 이 정도의 유사성이면, 조선연극사라는 장르에서 카토 칸가쿠의 이름이 제외되는 것은 서지학적 반역 또는 무지에 해당된다.<sup>2)</sup>

전경수 교수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김재철이 과연 가토 간카쿠의 해당 글을 보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서지학적 반역 또는 무지를 저지른 것인가이다. 또 하나는 ‘구극과 신극이란 양자의 구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록을 남긴 최초의 언급이 가토 간카쿠의 글’이라는 주장이다.

2) 전경수, 「민속학과 민속주의 사이의 송석하」, 『민속학연구』 51, 국립민속박물관, 2022.11, 12-13면.

3) 해당 글은 당시 상연되었던 작품들의 줄거리를 소개한 3면 낱짓 분량의 글로서 ‘논문’

이중 두 번째 주장은 해당 글의 ‘신파’와 ‘구파’라는 표현을 임의적으로 ‘신극’, ‘구극’에 대입한 판단이다. 이는 개항 이후, 늦게 잡아도 1900년대부터 이미 개념화되기 시작한 새로운 ‘연극’에 대한 인식과 일본에서 가부키 등 일본 전통극에 대타의식으로 성립된 ‘구파·신파’라는 용어, 해당 문화 및 단어의 수입으로 유사하게 지칭하게 된 구한말 판소리 등 전통극 영역의 명칭 등 연극사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미흡한 가운데 예단된 것으로서 해당 글에서 사용된 ‘신파’와 ‘구파’라는 단어 자체가 첫 번째 사용이 아니라는 점은 수다한 사례로 입증, 가능하다.

좀 더 예민한 문제는 첫 번째 김재철이 가토 간카쿠의 글을 보거나 알고도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는 서지학적 반역 또는 무지를 저질렀는가이다. 필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재철은 『조선연극사』에서 45종 정도의 자료를 80여 회에 걸쳐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논어』, 『맹자』, 『사기』, 『삼국지위지동이전』,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동아시아와 한국사의 주요 사료는 물론이요, 『民俗藝術』, 『郷土研究』, 『淨瑠璃史』 등 당대 일본 민속학 등 관련 잡지와 연구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며 이를 적시한 김재철이, 특히 경성제국대학의 독일발 문헌고증학의 영향 하에서 성장한 김재철이 하필 가토 간카쿠의 글을 보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서지학적 반역 및 무지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전경수 교수가 지적한 부분의 유사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필자의 관점으로는 전경수 교수의 인용 부분에서 언급된 작품이나 경과는 김재철의 『조선연극사』의 기술과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인용출처가 반드시 필요할 만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넓게 보아 비슷한 시기와 같은 대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관련 전공 밖에서는 이러한 언급에 반드시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전경수 교수의 논문에는 중요한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 전경수 교수는 해당 인용을 1933년 5월, 즉 한성도서관으로 간주하며 관련 페이지를 주석하고 있지만 전경수 교수가 참고한 판본은 1939년 5월 발간된 학예서관이다.<sup>4)</sup> 전경수 교수가 인용한 부분은 1933년 5월 한성도서관에서는 126면에 기술되어 있으며 두 판본은 완전히 다른 조판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조선연극사』가 1931년 4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41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는 사실을 전경수 교수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해당 부분 구극과 신극에 대해 기술한 『동아일보』 1931년 7월 4일 제 36회 연재분 말미에는 결정적인 언급이 있으니 바로 ‘尹白南 氏에게 謝함이다. 즉 광무 연간 원각사 극장이 창립되어 1909년에 최초로 이인직 씨가 신극 <설중매>, <은세계> 등을 상연하였다고 기술한 해당 내용은 윤백남의 설명에 따른 것이었다.<sup>5)</sup> 해당 구절은 단행본으로 발간될 때는 제외되었으나 『조선연극사』는 김재철의 학위논문을 기초로 동아일보 연재를 거치며 수정되어간 저서인 바, 전경수 교수가 문제 삼은 부분은 총독부 축탁이라고는 하나 일개 일본인 관객 가토 간카쿠가 아니라 1910년대 초반부터 조선의 연극을 만들어간 주체, 윤백남의 기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다.

필자의 소견으로 이렇듯 당대 활동 중이었던 중견 연극인 윤백남의 구

- 
- 4) 전경수, 앞의 글, 12면 주석 2번. 해당 주석에서 전경수 교수는 김재철이 1933년 1월 27일 사망한 점을 들어 지인들에 의해 사후출판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으나 이 또한 오해의 여지가 있다. ‘조선어문학회 총서’ 3권으로 『조선연극사』의 출간이 준비되기 시작한 것은 김재철 생전의 일로서 본문 내에는 해당 저서의 체재를 고려한 언급이 있다. 즉 『조선연극사』는 김재철 생전에 원고의 기본이 확정되고 조판이 진행 중이었다고 볼 것이다. 무엇보다 활판인쇄에 소요되는 약 6개월 정도의 제작기간을 고려할 때, 이를 순수한 사후출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5) 『조선연극사』에서 발견되는 이 무렵 연극계 상황에 대한 오류는 사료가 확정되어 대상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역사 기술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동시적 사건으로서 사적 객관화가 미흡하고 기억 및 회고 등 구술 사료에 의거할 때 발생하기 쉬운 오류라 할 것이며 얼마간은 필연적인 문제라고도 할 것이다.

술을 중심에 두고 구성했다는 것은 『조선연극사』의 근간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다. 김재철은 가면극, 인형극 등 오랜 역사와 기원을 밝혀야 하는 분야에서는 기꺼이 수많은 전적(典籍)을 통해 상세히 고증하면서도 역사적으로 다양한 극적 유산 전체를 다루지는 않았다. 즉 김재철은 문헌고증학적으로 전적(典籍)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1920~1930년대까지 여전히 전승되고 연출되던 현실적 극 장르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당대 총독부 및 일본인 주도의 관점, 당대 조선인이 향유하던 전래의 극문화를 낡은 유물 또는 당연히 개량되어야 할 대상, 타자화된 '민속'으로 보는 관점에 저항한 것이었다. 나아가 김재철은 당대 조선인의 극 문화를 나름의 역사와 가치를 지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적 대상으로 정립함으로써 조선인을 독자적인 문화주체로 구상하였던 것이다. 이는 한반도를 단순한 경유지로 간주하던 일본인 학자 및 통치 관료에 대항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주기도 했다. 즉 다양한 고문헌을 통해 조선 전래의 전통적 극 요소가 세계성과 보편성을 지닌 민중문화임을 전제함으로써 '노동대중'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연극을 구상하였고 그 중 노동계급을 주체로 상정하는 '프로 연극의 출현 또한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필연이라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6)</sup>

따라서 해당 부분을 김재철의 서지학적 반역 및 무지라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수 교수가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朝鮮彙報』에 실린 가토 간카쿠의 글 「朝鮮演劇の大要と其の脚本の梗概」을 김재철의 『조

6) 제제에 필자를 위해 약간의 부연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김재철의 『조선연극사』에 대한 여러 연구와 해설이 있고 이들 논저의 해석과 제안에는 경청해야 할 다양한 논점이 있다. 이중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바로 김재철의 『조선연극사』가 당대적 가치관과 요구에 따른 빼어난 사적 기술이라는 점이다. 필자의 여타 기술에 대해 독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나 필자는 '김재철이 민속극을 도태되어야 개념으로 간주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김남석, 「김재철의 『조선연극사』를 통해 본 연극 양식의 생성과정과 연극사 기술의 문제의식에 관한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21권 3호,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21.3., 192면; 줄고, 「김재철과 조선연극사」, 『민족문화사연구』 32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6.12.

선연극사』와 연관하여 기술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가 축적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때로 오독과 우연조차도 의미 있는 사건이 된다. 저마다 한계가 분명한 개인 연구자는 언제나 실수를 저지르고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개별 연구가 하나의 흐름을 이루며 사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에 주목하고 오독을 개선해가면서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애초 이러한 오해는 한국연극사에서 마땅히 짚어보고 참고했어야 할 가토 간카쿠의 글에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던 가토 간카쿠의 글을 살필 수 있게 해주신 전경수 교수께 감사드린다.

## 2. 가토 간카쿠(加藤灌覺)의 이력

가토 간카쿠(加藤灌覺, 1870~?)는 1870년 나고야 시(名古屋市)에서 태어났다. 1894년 쇼조코 사(清淨光寺)의 승려 양성기관인 지쥬(時宗) 서부학림(西部學林) 본과 전문부를 졸업했다. 1897년 지쥬 서부학림 전문부 강사(종교사)를 거쳐 1899년부터 1902년까지 동경 독일협회학교 및 동경제국대학 인류학 교실 등에서 독일어와 러시아어 및 인류학을 연구했다. 1902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으며 동경제국대학 인류학회 촉탁으로 러시아에 유학하였다. 1904년에는 러일전쟁을 피해 중국 및 남양 방면에서 5년간 유학하였다. 1908년 조선 전역을 대상으로 인류학, 고고학적 조사를 수행했고 1910년 조선어 연구를 목적으로 다시 도한(渡韓)하였다. 1914년 5월에는 도리이(鳥居龍藏)를 수행해 경주를 조사했고, 이후 수차례 도리이를 안내했다.

1914년 7월 조선역사지도의 편성, 1916년 3월 편집과 조선어에 관한 편수사무, 1922년 3월 고적 조사사무, 1922년 11월 고도서에 관한 조사사무,

1923년 2월 ‘지나어’ 번역에 관한 사무, 1924년 11월 관습조사사무, 1926년 3월 조선 고래(古來)의 흥수 및 관측에 관한 조사사무, 1933년 1월 연초에 관한 문헌 기타 자료수집 및 조사사무 촉탁을 역임했다. 총독부 전문촉탁으로서 그 외에도 잡지 『조선』 편집에 관한 사무, 조선 민족자료 조사사무, 경성부사 편찬위원회 위원, 민족(속)자료·역사참고품 고문적 등의 수집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맡았고, 1935년 현재 총독 관방(官房) 문서과 및 외사과(外事課), 내무국, 학무국 학무과 편집과 및 사회과, 경성제국대학, 전매국, 경성전기 등의 촉탁을 역임했다. 독일어·러시아어·중국어·한국어에 능통하였으며, 아시아의 풍속 연구를 위해 남양(南洋), 중국과 러시아령 시베리아·몽골·만주·인도차이나·호주 등을 두루 조사하였다.<sup>7)</sup>

해방 직전 가토 간카쿠는 시정기념관(施政紀念館)에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8)</sup> ‘시정기념관은 1940년 4월 조선총독부 시정(始政) 30년을 기념해 조선총독부 구 관저에 개관하였으며 일제의 한국 통치와 관계있는 유물을 모아놓은 곳이다. 역대 통감 및 총독의 초상, 일왕 방문에 사용되었던 마차와 침대, 한일병합 조인실의 가구 등이 소장되어 있었다. 해방 후 가토 간카쿠는 이곳의 관장 자격으로 당시 체제를 정비 중이던 국립박물관의 김재원을 찾아와 자기는 일본의 패전을 가장 유쾌한 일로 생각하며, 이제 전주 이씨로 창씨까지 하였으니, 시정기념관을 민속관 같은 것으로 고치고 계속 관장이나 그 보좌역으로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고 한다.’<sup>9)</sup>

- 
- 7) 가토 간카쿠(加藤灌覺)의 이력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축한 한국근대사료DB (<https://db.history.go.kr/modern/main>) 근현대인물자료의 ‘加藤灌覺’ 항목을 기초로 삼았다. 해당자료는 貴田忠衛 編, 『朝鮮人事興信錄』(朝鮮人事興信錄 編纂部, 1935)을 참고한 것이다. 그 외에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등을 통해 자료를 보완한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김광식, 「일본 문부성과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구비문학 조사와 그 활용」, 『연민학지』 제 20집, 연민학회, 2013.8., 266-270면.
- 8) 김광식은 和田八千穂·藤原喜蔵 編, 『朝鮮の回顧』(近澤書店, 1945.3.)에 가토의 글에 부수된 ‘집필자 약력’에 ‘현재 총독부 학무국 편수와 및 鍊成課 촉탁으로 시정기념관 주임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의 글, 266면.
- 9) 김재원, 『박물관과 한평생』, 탐구당, 2000, 89면.

김재원은 가토가 일본인 사이에는 러시아 정탐이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한국에 잔류하면서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짐을 맡아두었다가 임의로 처분하기도 하였으며 한국 여성과 살면서 평소에는 학대가 심하다가 패망 후에는 극진히 대접했다는 일화와 함께 결국 일본으로 가지 않고 북한산 기슭에 있는 고아원인 애린원에서 사망했다고 전하고 있다.<sup>10)</sup>

### 3. 1918년 조선 연극의 개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총독부 직원으로서 가토 간카쿠는 조선의 풍속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데 대단히 폭넓게 활약하였다. 그러나 그의 활약은 학술적이기보다는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하면 조선인 통치에 유리하게 해석하는가에 주안점이 있었다. 이는 「朝鮮演劇の大要と其の脚本の梗概」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무엇보다 당대 조선 연극의 배우는 모두 광대, 사당, 거사 등 전통적인 광대에서 전업하였는데, ‘아무런 예술상의 기능을 보유한 자가 없다’고 단정하며 시작하는 데서도 이는 분명하다. 이는 당대 조선의 공연 문화에 대해 가토 간카쿠가 어떤 관점에서 살피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소개되는 당대 공연된 작품은 현재 제대로 알려진 바 없어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신파극 레파토리로 첫 번째 소개하는 <황금의 십자가>는 가토

10) 그의 사망시점은 1946년 또는 1948년으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다. 전경수 교수는 서울 본원사 별원에서 조선인 부인과 거주하다가 1946년경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하고 있다. 전경수, 앞의 글, 13면.

한편 웹진 PUM(Political Users Mind)의 기획기사 「잔존 일본인2 : 조선총독부 촉탁 가토 간카쿠(1870~?, 서울)에서는 가토 간카쿠가 왜성대(현 예장동과 회현동 1가 지역)에서 한국인 이 씨와 거주했으며 1948년에 사망했다고 전해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https://www.p-um.net/p/heritage/human/clvbykmyrn01eo01ah7j299qd8>

자신도 ‘오래된 서양 소설’을 번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이 작품의 의상이나 무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다. 해당 레파토리의 원전을 찾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러니와 유럽 낭만주의의 한 기풍이라고도 할 수 있는 <춘희>나 <마농 레스코> 같은 신분적 차이를 넘어서는 사랑 이야기를 다시 ‘부부 중심의 애정관으로 돌이키면서 동시에 젊은 자녀의 죽음을 제물로 삼는 서사적 전략에서 더욱 어두운 목표를 느끼게 된다. 다만 1918년 현재 조선 신판극계에서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작품의 번안과 상연이 시도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가벼이 넘길 일은 아닐 것이다.

두 번째 작품 <우정> 또한 기존 학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이다. 고학생 김성학과 신사인 독지가 민정훈의 딸 초선, 자산가인 부정적 인물 강성의 삼각관계를 다룬 작품이다. 겁탈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능동적인 여성 초선의 면모도 인상적이러니와 자산가 강성의 대신 고학생 김성학을 사위로 선택하는 민정훈의 판단도 흥미롭다.

앞서 <황금의 십자가>에는 없었지만 이 작품에는 가토 간카쿠의 개인 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조선에서 행해지던 부녀약탈의 실체를 형상화한 것이며 ‘고학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관객의 기호의 편승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하였으니 부정적인 요소는 실체를 형상화한 것이요, 새롭고 긍정적인 가치는 당시 관객의 기호의 편승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 번째 작품 <충? 의?>는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자면 ‘충성이나? 의리나?’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정택이란 악한에 저항하여 충복 ‘신보’가 주인의 딸을 지키고 악인 전부를 극형에 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니 주인공은 충성스러운 노복 ‘신보’일 것이다. 이 작품의 실체는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희생자 이남작은 살해되고 그 딸 애향도 위기에 처한바, 이들은 악한 정택과 그 하수인 석돌이에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극적 구원자 또는 조력자가 하층계급으로 설정된 것도 흥미롭거니와 ‘충상’ 또는 ‘의리’를 여전히 중대한 가치로 제안하고 있는바, 당대 관객은 이 같은 인물 구성

을 어떤 정치적 역학으로 전유했는지도 궁금하다. 여기에서도 가토 간카쿠는 정의의 실현보다는 '조선에서 행해져 왔던 죄악 사건'을 모델로 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니 전래의 조선사회는 범죄와 약탈혼이 횡행하는 야만의 사회였다는 주장이다.

구과 부문에는 <춘향전>, <심청전>, <장화홍련전>이 언급되고 있다. <춘향전>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를 반쯤 희극적으로 꾸며 관객의 흥미를 환기하려 한 결과 지금은 그 원작의 묘미를 상실했다는 언급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918년 현재 상연된 <춘향전>의 각색이 '희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물론 원작의 묘미를 상실했다는 언급은 가토 간카쿠의 판단에 당시 조선의 연극이 빼어난 전통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심청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고소설 「심청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생각한 의도와는 달리 중국소설의 변안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언급은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의도는 분명하다.

<장화홍련전>은 특별하다. 구과 연극으로서 <춘향전>이나 <심청전>은 소리(唱)가 결합되어 상연되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전하는 소리가 없는 <장화홍련전>에도 소리가 없었을까? 배영화, 동식 등으로 구체적 인명이 보완되고 있는 점도 눈에 띄거니와 무엇보다 장화와 홍련의 관정호소, 사또의 눈앞에 나타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장면이 사라졌다. 이로써 즐거리만 보면 조선 후기 최대의 공안소설이라 할 수 있는 「장화홍련전」이 평범한 가정비극에 한정되고 만다. 다만 이들 사건이 '관청까지 들어간다는 구절이 있으니 명철한 관리의 판단을 즐거리에서 배제한 가토의 의도인지, 실제로 구한국의 옳은 판결을 드러낼 수 없도록 강제한 검열적 상상력의 결과인지 궁금하다. 사악한 계모 장 씨와 그 아들의 활약, 어리석은 가장 배영화와 이들에게 살해되고 좌절하여 자살하는 장화, 홍련을 '조선인의 심리적 일면을 사실 그대로 잘 비추어 냈다는 해석도 조선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명백한 조선총독부 관리

의 시선이다.

이들 작품에서 전체적으로 인상적인 것은 ‘여성 캐릭터’의 약진이다. 신파극에서 소개된 세 작품 모두 주인공 여성의 비중과 활약이 돋보인다. 이 시기에는 여성 배우의 본격적인 활약이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배역은 주로 여장 남자 배우의 몫이었을 것인데, 문득 이들의 연기를 통해 여성 배역의 연기술이 구축되었던 것은 아닐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들 신파극 레파토리의 원전을 찾고 고소설의 극화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수립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 [원문]

加藤灌覺, 「朝鮮演劇の大要と其の脚本の梗概」,

『朝鮮彙報』, 朝鮮總督府, 1918.9.1.

加して屢大切に行ひ腐熟完了の後は一定の場所へ堆積す。  
(一) 人糞尿には販賣の際腐熟堆肥を混和し泥状となし運搬及  
鮮人農家の使用に便ならしむること。  
一 鮮人便所の改造を極力奨励し糞尿の生産を可及的多額な  
らしむこと。

一 現在の汚物捨場は市街地に隣接すも雖も肥料倉を設備だ  
に完全ならば府の衛生上大なる支障なかるべしと推測せら  
るるも慎重調査の結果不可なりとせば別に選定すべし其位  
置は大同江に近接し市街と相当距離を保ち市より運搬便に  
して且つ販賣に便なる箇所を選定するを要す。

以上施設の結果幾分肥料價格の騰貴は免るべからずと雖も  
有効肥料の施用は其差額を補ふて餘りあるべし。  
予は汚物利用の現況を調査し前記の施設を爲すを以て最も  
適切なるものと信ず糞尿の形態を前記以上に變質せしむるこ  
と現狀に照らして必ずしも策の得たるものにあらざるべし。

### 朝鮮演劇の大要と其の脚本の梗概

一 朝鮮演劇の大要

總督府誌 加藤灌覺

調査及研究

朝鮮の演劇には新派と舊派との別あり新派は所謂内地新派

劇の亞流にして舊派とは即ち朝鮮固有の歌舞劇を基礎として  
之に内地的の脚色を加味せるものを指稱す。

由來朝鮮に於ては明白なる意味に於ての演劇なるものなく  
單に古來の遺風を傳へて嬉戲的の歌舞等を演奏せるものあり  
たり現代の朝鮮語に從へば之を廣大司命會堂生司路會升々等  
と稱し文書の上には之を優倡又は才人等と稱せり。

新派劇の創始は僅に七八年前のことなりしも舊派の創始は  
既に明治三十七八年の前後にありたりしが如し。

彼等は悉く廣大會堂路會等の轉業者より成り立ち何等藝術  
上の技能を有するものありしを見しことなし。

彼等の劇場は殆んど常設的狀態にして新派は之を團成社  
に於て演奏し舊派は之を光武臺に於て演奏す。

朝鮮演劇脚本の概要は兩派戯曲中の重要なもののみを調  
査して之を概念的に記述し以て其の一端を知り得るの便に供  
するものに過ぎざることを附言す。

#### 二 朝鮮演劇脚本の梗概

##### 甲 新派の部

##### (一) 黄金の十字架

此の藝題は古き西洋の小説を翻案せるものにして、  
佛蘭西貴族中の名門ガストン伯爵なる人或る日巴里の一劇  
場に至り時の名優ラレット嬢の艶姿を一見して之を忘るる  
こと能はず遂に莫大なる金を投じて彼の女を外妾となした

## 調査及研究

る上妻子を忘れ各門たることをも忘れて米國に渡航し爾後約一年有半行らん限りの奢侈を盡してラレットを喜悅せしめんことをのみ思考せる中彼れ伯爵は最早凡ての金錢を浪費し了りて遂には飢渴に逼るの窮境に至れり然るに女優ラレットは無情にも伯爵を棄てて其の行衛を暗まし或る他の富豪と同棲して四方に周遊せるの報を耳にせり茲に至りて伯爵ガストン初めて多年の迷夢より覺め來りされと同時に己れの罪惡の過大なることをも慚愧し昨夜公園の中に来りて自殺を決行せんとせるの際牧師グール氏偶此の處を通過して之を救助し頗る之に同情して彼しを故國に送らんことを計畫せり然るに一方巴里に於ける伯爵夫人は久しく貞節を守りて其の身を墜さず其の一女兒なるエメリを送りて修道院に入らしめそれと同時に己れも亦清き獨棲の人となるべく決心せる折柄夫伯爵偶然米國より歸り來り前非を悔ひて切に同棲を求むるに遇ひたりしも遂に之を拒絶して己れの素志を貫徹せんことを告げたり伯爵は己むを得ずして修道院を訪問し其の女兒エメリに會見して己れが罪惡の始終を告白したるに神父ラペー氏頗る之に同情して熱心一家の復舊に盡さんとせる中エメリ嬢突然重病に罹りて將に危篤に瀕せんとするに當り之れ亦熱心父母の同棲を懇請して已まざるの結果夫人も遂に承諾して目出度同棲を營ひたりしを見届けエメリ嬢は神を讚美し喜びに充ちつつ昇天せりとのことを敘す。

## (一) 友情

此の藝題は平壤在れの書生金星學なる者京城に來りて苦學中生活難の爲に公園を徘徊して將に自殺を決行せんとせる際京城の紳士閔正勳及資産家姜聖義なる者の弟聖完等散歩に來りて之を救助し閔正勳の保護に由りて勉學中なりしが資産家姜聖義は閔正勳の娘楚仙に戀慕して之を娶らんどの希望を有し直接之を閔正勳に打明けたる處閔正勳は楚仙を以て勤儉なる苦學生金星學の妻たらしめんと希望ありしを以て之を拒絶したるに姜聖義は之を斷念すること能はず暴力を以て楚仙を掠奪したる上強請的に己れの惡習を遂げんと欲し惡漢等に酒資金錢を給して之を實行したるも楚仙は頑として之に應ぜず聞を覗つて聖義の別宅を脱出し貞操を完くして遂に金星學と結婚し一家繁盛したりとの始末を敘せり。

右は由來朝鮮に於て行はれたることありし婦女掠奪の片面を實寫せんとしたると同時に近代的思想より來れる苦學生なるものを主人公となして觀客の嗜好に投せしめんと試みるが如し。

## (二) 忠義

此の藝題は鄭澤と呼べる惡漢己れの妻と共謀して好色紳士李男爵なる人の財産を横領せんと欲し己れが同類石突なる者をして同家の車夫に住み込ませし遂に李男爵を暗殺して其財産の一部を横領し尙ほ亦李男爵の實女愛卿を殺して其

全家を奪取せんとしたるに當り李男爵家の忠僕信甫なる者之を探索して官憲に密告し遂に悪人の全部を極刑に處したりしこの顛末を敘す。

右懸題は由來朝鮮に行はれ來りたりし罪惡の事實を捉へて之に多少の潤色を加へたるものに係れり。

乙 舊派の部

(一) 春香傳

此の懸題は全羅道南原の郡守李某の一男に夢龍なる者あり幼より其の父に伴はれて任地の南原に在りたりしが其の際老妓月梅の女兒なる春香と相知り相思の關係を生じて他日の同棲を誓へり然るに夢龍は其の父の官職を退きて京城に上るに隨ひ爾來勉學文科の試に應じて目出度壯元の及第を得たり。

其の間既に幾多の星霜を閲して相互の音信絶へたること久しかりし雖も夢龍は常に春香を忘れず春香又彼を忘れざりしの状態を持續せり。

時に春香漸く長して姿色一世を風靡し近代絶無どの世評ありしが時の南原郡守淫蕩にして女色を近づけ其の醜姿を一見して之を忘ること能はず其の母なる月梅に逼りて強制的に之れが意志に従はしめんとことを要求せり。

然るに春香は深く夢龍との約束を重んじ死すども之に應ぜざるの意志を示したるの結果郡守は彼の女を牢籠に投じて苦難を嘗めしめつつあるの際李夢龍は暗行御史となりて南

調査及研究

原に來り不法の郡守を革職して春香を救ひたりとの顛末を敘せり。

右は有名な朝鮮の古小説にして一般の朝鮮人中殆んど之を知らざるものなし一名窟中花とも稱して多少の潤色を加へられたりものあり彼等は之を半喜劇的に仕組して觀客の興味を喚起せんとしたるの結果今や其の原作の眞味を喪失したる所又頗る多し。

(二) 沈清傳

此の懸題は幼にして其の慈母を喪ひたる一少女盲目の慈父に事へて孝養を盡しつつありし間に醫藥を加へなば其の父の眼疾も未だ其の明を失ひたるものにあらざることを聞知し決然其の身を買りに賣りて多少の金錢を收受し之を其の父に贈呈して眼疾治療の資となさしめたりして天其の至孝に感じて其の父の眼疾も全治し其の身も又或る王者の妃となりて一身の貴榮を致したりしこの顛末を敘す。

右は在來せる朝鮮小説沈清傳の一部分を潤色せるものなれども全然それが意想としては遠く支那小説中の醜案物よりも影響受けたりしものなるが如し。

(三) 蕙花紅蓮傳

此の懸題は今を距ること三百五十年の昔表永華と云へるものありしが其の妻金姓女は健兒の娘を遺して死じしるも彼は其の遺兒なる二人の娘を愛育して姉を蕙花妹を紅蓮と名づけたり然るに父永華は蕙花等の十七歳となりし時に當

八一 (二五七)

調査及研究

り再び後妻の張氏を娶りたりしが此の張氏には同植と呼べり連れ子ありしを以て常に永華が所有せる財産の全部と同植に與へんことを希望せるの結果日常蘭花と紅蓮どを憎むこと甚しく同植と共に謀して萬端彼の二遺兒を誣告し遂に蘭花をして其の家を脱出せしむるに至れり其の後同植は或る深山に於て蘭花を見出しを溪谷中に投殺したるに一頭の猛虎出現して同植に噛み付たり同植は重傷を受けつつも其の場を逃走して其の家に歸來し有りし事情を張氏に語り居るの際妻永華之を探問して彼等を叱責したり其の中紅蓮は姉蘭花の遂に歸り來らざることを歎き之れ亦其の家を脱出して身を大河の中に投じ以て蘭花の跡を追ひたり然るに程なく蘭花と紅蓮との亡靈父永華の枕頭に現はれ繼母張氏が罪惡の一切を陳述して己れ等の仇を復し呉れられんことを乞ひたるが此の事遂に官に聞へて張氏及同植を極刑に處したりしこの顛末を叙す。

右は朝鮮の古小説蘭花紅蓮傳を脚色せるものにして能く朝鮮人の心理的方面を寫實せるものに係る。

米價研究の方法

樞城縣書記 松本彦治郎

一 本文は引物院聲明の形容を選擇簡切を旨として要領のみを抽出せり。

- 一 本文中特に格致書を以て後日研究の結果定むる記せし點は後日實際の統計に就き調査の結果大體の腹案を作り之を決定せむるものなり。
- 二 本文は米穀取引所米價の豫想に關する研究の記述なり故に本文中單に米價を論ずるは米穀取引所の米價に限定せむるものなり。
- 三 本文中單に代用品の稱するは米以外の穀物にして飯用として消費量尙の米に對し百分の一以上のものとす。
- 四 本文中の諸統計の調査期間に關しては資料を蒐集し得ざる限り可成的過去に遡るものとす。
- 五 本文中の各表に於て富一人又は富一砂の單位は金額に付ては黒石高に付ては金額を充むるものなり然し本文の各表の単位に關する單位にして錢又は升等附したるものは註明するものとす。
- 六 本文中の第三章に標記する各事項は米價關係事項の調査として從來社會に發表せられしものより一層精密の度を加へたること又は比較上一層の直接益數に換率したる所に研究の特色を有す。

目次

- 第一章 緒論
- 第一節 統計的尺度
- 第二節 米價並市中卸賣相場
- 第三節 代用品の價格
- 第四節 輸出入並代用品價格
- 第五節 輸出來貨代用品
- 第六節 米貨代用品需用高
- 第七節 人口
- 第八節 酒類製造用消費高
- 第九節 飯用及酒類製造用外消費高
- 第十節 輸出高
- 第十一節 米貨代用品供給高

## [번역문]

加藤灌覺, 「朝鮮演劇の大要と其の脚本の梗概」,

『朝鮮彙報』, 朝鮮總督府, 1918.9.1.

-조선 연극의 대요(大要)와 그 각본의 경개(梗概)

총독부 촉탁 가토 간카쿠(加藤灌覺)\*

### 1. 조선 연극의 개요

조선 연극에는 신파와 구파의 구별이 있어, 신파는 이른바 일본 신파극의 아류로, 구파는 즉 조선 고유의 가무극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일본식 각색을 가미한 것을 지칭한다.

원래 조선에는 명백한 의미의 연극이란 것은 없고 단지 고래의 유풍을 전하여 희극적인 가무 등을 연주하는 자가 있었다. 현대 조선어에 따르면 이를 광대(廣大), 사당(舍堂), 거사(踞舍)<sup>1)</sup> 등으로 호칭하고, 문서상으로는 이를 우창(優倡) 또는 재인(才人)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파극의 창시는 겨우 7, 8년 전의 일이지만 구파의 창시는 이미 1904~5년 전후에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모두 광대, 사당, 거사 등에서 전업한 자로 이루어져 아무런 예술상의 기능을 보유한 자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의 극장은 거의 상설적 상태로 신파는 이를 단성사에서

\* 번역 황인용, 일본 다이쇼(大正)대학 박사과정 수료

1) 원문의 '踞舍'는 가토 간카쿠의 오해거나 오식이다.

연주하고 구피는 이를 광무대에서 연주하였다. 조선 연극 각본의 개요는 신구 양파 희곡 중에 중요한 것만을 조사하여 이를 개요적으로 기술하여 그 일부분을 알게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덧붙인다.

## 2. 조선 연극 각본의 경계

### (갑) 신파 부문

#### (1) 황금의 십자가

이 예제는 오래된 서양 소설을 변안한 것이다. 프랑스 명문 귀족 가스통 백작은 어느 날 파리의 한 극장에서 명배우 라레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그녀를 잊을 수 없어 결국 막대한 돈을 들여 정부로 맞이한다. 그 후, 처자식을 잊고 명문 집안도 잊고 미국으로 건너가 약 1년 반 동안 갖은 사치를 다하여 라레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에만 몰두한다. 그러던 중, 결국 백작은 어느새 모든 돈을 낭비해 버리고 기갈에 부대길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 그런데 배우 라레뜨는 무정하게도 백작을 버리고 그 행방을 감추었다. 어느 다른 부호와 동거하며 사방을 주유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에 이르러 가스통 백작은 비로소 다년의 미몽에서 깨어났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죄악이 엄청난 것도 부끄럽기 짝이 없어 어두운 밤 공원에서 자살을 결행하려 할 때 목사 게르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이를 구조하고 그를 매우 동정하여 고국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파리에 있는 백작부인은 오랫동안 정절을 지켜 그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외동딸인 에밀리는 수도원으로 보내고 동시에 스스로도 또한 깨끗하게 홀로 살려고 결심하였다. 바로 그때 남편인 백작이 미국에서 돌아와 이전의 잘못을 후회하며 간절히 같이 살기를 청하고자 만나려 하였다. 그러나 백작 부인은 결국 이를 거절하고 스스로 세운 뜻을 지키

겠다고 알려주었다. 백작은 하는 수 없이 수도원을 방문하여 딸 에밀리를 만나 자신의 최악의 시중을 고백하였다. 이에 신부 라페가 매우 동정하여 열심히 일가가 복구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 도왔다. 그러던 중, 에밀리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위독하게 되었고 바야흐로 죽음이 임박하자 에밀리는 부모가 함께 살 것을 열심히 간청해 마지않았다. 그 결과 부인도 결국 승낙하여 경사스럽게 동거를 서약하는 것을 지켜보며 에밀리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쁨에 충만하여 승천한다는 내용이다.

## (2) 우정

이 예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양에서 태어난 서생 김성학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고학 중, 생활고에 공원을 배회하다 막 자살을 결행하려고 할 때 경성의 신사인 민정훈과 자산가 강성의라는 사람의 동생인 성완 등이 산책하러 와서 이를 구조하였다. 민정훈의 보호에 의해 김성학은 면학을 지속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자산가 강성의는 민정훈의 딸 초선을 연모하여 그녀와 결혼하기를 희망하였다. 강성의는 직접 민정훈에게 혼담을 이야기하였으나, 민정훈은 초선을 근면한 고학생인 김성학의 처가 되기를 원하였으므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강성의는 이를 단념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초선을 납치하여 강제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폭력배들에게 술과 음식, 돈을 주어 이를 실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초선은 이에 응하지 않고 완강히 버티며 틈을 엿보다가 강성의의 별장을 탈출하여 정조를 지키고 마침내 김성학과 결혼하여 일가 번성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는 옛날부터 조선에서 행해지던 일이 있었던 부녀약탈의 한 면을 실제와 형상화함과 동시에 근대적 사상에 기반하여 고학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관객의 기호에 편승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 같다.

### (3) 충? 의?

이 예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택이라고 불리는 악한이 자기의 처와 공모하여 여자를 밝히는 신사인 이남작이라는 사람의 재산을 횡령하려고 욕심을 낸다. 자기의 한패인 석돌이라는 자를 그 집에 운전수로 입주시켜 결국 이남작을 암살하고 그 재산의 일부를 횡령하고 또 재차 이남작의 친딸인 애향을 살해하여 그 온 집안을 탈취하려 할 때, 이남작 집안의 충복인 신보가 이를 탐색하고 관헌에 고발하여 결국 악인 전부를 극형에 처하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이 예제는 옛날부터 조선에서 행해져 왔던 죄악 사건을 포착하여 여기에 다소의 윤색을 덧붙인 것과 관계가 있다.

## (을) 구파 부문

### (1) 춘향전

이 예제에는 전라도 남원의 군수 이모 씨의 장남 몽룡이라는 자가 있었다. 어릴 때 그 아버지와 함께 임지인 남원에 있었는데 그때 늙은 기생 월매의 딸인 춘향과 서로 알고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사이가 되어 훗날의 결혼을 서약하였다. 그런데 몽룡은 그 아버지가 관직의 임기를 끝내고 경성으로 올라감에 따라 이후 학문에 힘써 문과시험에 응하여 경사스럽게 장원급제가 되었다.

그동안 이미 몇 해가 지나 서로의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으나 몽룡은 항상 춘향을 잊지 않고 춘향 또한 그를 계속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춘향의 나이가 차차 들어 자색이 일세를 풍미하여 이 시대에 전무하다는 세상의 평이 있었는데, 당시의 남원 군수가 음탕하여 여색을 가까이하며 그 아리따운 모습을 한 번 보고 이를 잊을 수가 없어 그 모친인 월매를 핍박하여 강제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춘향은 몽룡과의 약속을 깊이 존중하여 죽어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결과 군수는 그 여인을 옥에 가두었다. 계속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에 와서 법에 어긋난 군수를 면직하고 춘향을 구한다는 것이 서술하는 전말이다.

이상은 유명한 조선의 옛 소설로 일반 조선인 중 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일명 '옥중화'라고도 일컬어 다소의 윤색이 더해진 것도 있다. 그들은 이를 반쯤 희극적으로 꾸며 관객의 흥미를 환기하려 한 결과 지금은 그 원작의 묘미를 상실한 바 또한 대단히 많다.

## (2) 심청전

이 예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한 소녀가 눈먼 아버지를 섬기고 효도를 다하며 살아가던 중에, 치료를 잘하면 아버지의 눈병도 아직 그 시력을 잃는 것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단호히 그 몸을 인신매매자에게 팔아 다소의 돈을 받아 이를 그 아버지에게 드려 눈병 치료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하늘이 더없는 그 효성에 감화하여 그 아버지의 눈병도 전부 나았고 그 자신도 또한 어느 왕의 왕비가 되어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이 서술된 전말이다.

이상은 전래하는 조선 소설 '심청전'의 일부분을 윤색한 것이지만 전혀 생각한 의도와는 멀고 중국소설 중의 번안물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 (3) 장화홍련전

이 예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350년 전에 배영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 김 씨는 쌍둥이 딸을 남겨놓고 죽었다. 그 후, 배영화는 남은 두 딸을 사랑으로 키우며 언니를 장화, 동생을 홍련이라 이름 지었다. 그런데 아버지 영화는 장화 자매가 17살이 되었을 때에 후처인 장 씨를 맞아들였다. 장 씨에게는 동식이라는 데리고 온 아이가 있어, 항상 영화가 소유하는 재산 전부를 동식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였다. 그 결과, 일상 장화와 홍련을 미워하는 일이 심하여 동식과 공모하여 갖은 수단으로 그 두 아이를 무고하여 결국 장화가 그 집을 탈출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동식은 어느 깊은 산에서 장화를 찾아내어 이를 계곡 속으로 던져 살해하였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동식을 물어뜯었다. 동식은 중상을 당하면서도 그곳에서 도망하여 집으로 돌아와 있었던 사정을 장 씨에게 말하고 있을 때 배영화가 이를 탐문하여 그들을 질책하였다. 그러는 사이 흥련은 언니 장화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을 한탄하여 이 역시 그 집을 탈출하여 자신의 몸을 큰 강에 던져 장화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장화와 흥련의 영혼이 아버지 영화의 머리맡에 나타나 계모 장 씨의 죄악 일체를 진술하고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결국 관청까지 들어가 장 씨 및 동식이 극형에 처해진다는 것이 서술된 전말이다.

이상은 조선의 고소설 장화흥련전을 각색한 것으로 조선인의 심리적 일면을 사실 그대로 잘 비추어 낸 것에 관계되어 있다.